

[ 시티 & 피쳐 ]

■ 광주지하철 개통 2주년... 본보 소음·진동 조사

소음, 작년보다 평균 2~3dB 상승

소태~증심사입구 구간 가장 심해  
진동도 1dB 높아져... 기준치 초과

광주 지하철의 소음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3dB 상승하고, 진동도 지난해보다 1dB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간 최대 소음과 진동이 건설교통부 기준을 다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광주 지하철 각 구간 소음·진동 측정 결과

Table with 5 columns: 구간, 소음(dB(A)), 진동(dB(V)), and comparison values. Rows include 소태~증심사입구, 증심사입구~남광주, 남광주~도청, etc.

일반적으로 지하철의 소음과 진동을 측정할 때는 승객들의 목소리나 안내방송 등 다른 소음을 빼고 하지만, 취재진은 승객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이것들을 포함시켰다.



본사 취재팀이 개통 2주년을 맞은 광주지하철 1호선 진동차 내에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있다.

지난해 측정치인 77.3dB보다 0.8dB 높았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은 것이다. 진동은 농성~화정 구간이 80dB로 가장 높았다.

광주 김치 사업영역 확대

측순·연김치 등 기능성제품 개발 강화... 판매도 급증

광주·전남지역 김치 제조업체들이 '웰빙' 추세에 맞춰 측순김치와 연김치 같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묵은지'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9일 '광주·전남김치산업육성사업단'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대형 김치제조 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 16개 김치사업단 협력기업들은 지난 해부터 생산자별 베스트 품목을 선정한 '김치대왕' 판매량에 인터넷 쇼핑몰(www.gkimchi.com)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김치업체가 고무되고 있다.

와 '죽순김치'를 담양 대나무죽제와 함께 판매하는데 판매 및 시식용으로 내보 효과를 받았다. 또한 여수의 명물인 '묵은 갖김치'와 고등어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만든 '묵은 갖김치' 등도 이달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1가구 1차 시대'

광주시 44만대 등록

광주시가 '1세대당 1자동차 시대'를 맞았다. 광주시는 9일 자동차 등록대수가 4월말 현재 44만9799대로 지난해 말 43만6천44대에 비해 1.13%가 증가함으로써 세대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뷰

"신규사업 개발·투자경영 주력"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빠른 시일내에 투자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어 신규 사업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진시 주최자 및 전시장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사장은 충남 연기 출신으로 대전·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KOTRA에 입사, 삼파울러·두바이·중동아프리카본부장, 런던무역관장 등을 거친 전시·컨벤션 업계의 전문가이다.

Table titled '생활안내' (Life Safety) listing various servic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교통안내' (Traffic Safety) and '상담' (Consultation).

Advertisement for '25년 고객사랑!' (25 Years of Customer Love!) for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Features text about high-quality service and a 'Singleron May!!' promotion.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 various areas like 정우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대인부동산, 엑스포공인중개사, 아름다운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and 부동산. Each listing includes details about the property,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